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

이주영*

1. 서론
2. 불교 관련 장면의 특성
3. 불교 화소 도입의 배경과 의미
4. 결론

1. 서론

『17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집』¹⁾에 실린 글 가운데는 무속이나 불교를 멀리한 여성 9명의 모습이 보인다. ‘행장’, ‘제문’, ‘묘지명’ 등을 통해 소개된 이 여성들은 유교 이외의 종교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무당과 좌도(左道)의 일과 같은 것은 완전히 물리쳤다”²⁾거나 “무당을 불러 축수하는 잘못된 일에 혹하지도 않으셨다”³⁾고 기록되어 있다. ‘좌도’를 가까이 했다는 다른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사를 토대로 당대인들이 종교 활동에서 무엇을 우위에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좌도’라는 표현은 유교의 종지에 어긋나는 ‘사교’(邪敎)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자료집에 수록된 글은 대부분 사대부 남성들이 세상을 떠난 양반가 여성의 삶을 회고하며 쓴 것이다. 설령 ‘좌도’를 가까이 한 인물이 있었다고 해도 애당초 그런 기록은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왜 이들 9명의 여성이 좌도를 멀리한 사실이 부각되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면 기록과는 반대되는 풍토가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른바 좌도라는 것을 멀리하지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정형지 외 5인(공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 보고사, 2006.

2) 송시열, <정경부인 김씨 묘지명>,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사, 2006, p.138.

3) 김수항, <큰 누이 묘지>, 위의 책, p.288.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상을 확인하는 데 종교적 이념을 유일한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지목한 9건의 좌도 관련 기사 가운데 4건은 우암 송시열의 글이다. 그러나 그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김창협은 누이가 죽었을 때 자신이 산사(山寺)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고⁴⁾ 그의 아우 김창흡은 『중용』을 읽은 후 유학에 전념했다고 하였지만 승려들과의 교유시를 400여 편이나 남겼다.⁵⁾ 그런가 하면 『사변록』으로 인해 김창협 형제의 비판을 받았던 박세당은 무조건적인 척불을 비판하며 불교를 포용하고자 했다.⁶⁾ 그도 누이가 “성격상 그저 복을 빌기만 하는 것을 싫어하여 무당이나 푸닥거리하는 이들을 문안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고하며 기록으로 남겼다.⁷⁾

부분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좌도와 관련해 남겨진 기록과 그 기록을 남긴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종교에 관한 한 기록 이면에 표면과는 다른 내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배타성이 강조되는 시기의 종교 관련 언술들은 개인의 종교 관이나 신념의 변화, 주류적 사고, 시대 풍조 등 제반 정황을 세심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호불호와 같은 개인적 성향을 종교적 태도로 환원한다든지 종교에 대한 신실함이 모든 언행으로 구체화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17세기 말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⁸⁾ <소현성록>은 대하소설을 대표

4) 김창협, <누이에게 주는 제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p.340.

5)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 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p.173.

6) 이희재, 17세기 박세당의 유불회통적 불교관, 『유교사상연구』25, 한국유교학회, 2006, p.5.

7) 박세당, <정부인에 추증된 반남박씨의 묘지명>,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p.102.

8) 가족사 서술 방식에 착목한 정병설은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의 자손 수록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후편의 작가가 각각 다를 것이라 추정하였고(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고전소설의 창작시기와 창작과정에 대한 가설,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2010, p.239), 정길수는 ‘본전’에 해당하는 전반부가 17세기 후반 무렵, ‘별전’에 해당하는 ‘소씨삼대록’이 18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p.115). 하지만, 필자는 본전에서 미흡한 부분이 별전을 통해 보완된 것으로 보아 ‘본전’과 ‘별전’의 창작자와 창작시기를 다르게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하는 작품이면서 예교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교 교과서로까지 불리는 작품이다.⁹⁾ 주요 등장인물들이 유교적 관점에서 모범이라고 여길 만한 사고와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 중심 사건의 귀결이 충효열과 같은 유교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규정은 타율이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의 말미에 갑작스럽게 ‘관음대사’가 출현한다.¹⁰⁾ 이는 유교적 성향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여 독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관음대사를 포함한 신비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소씨 가문의 유교적 이념성이 약화되지는 않는다.¹¹⁾ 관음대사는 현실에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으며, 작품 전체에서 불교적인 내용 또한 미미하다. 따라서 이들 초월계의 설정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교 불교적 요소의 단순 차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양부인과 소경 모자가 불교를 두고 대립하는 양상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지만 양부인의 작품 내 지위를 감안하면 더욱 등한하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¹²⁾ 대하소설의 경우, 대개의 작품에서 불교는 가문이라는 유교적 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¹³⁾ 그런데 다른 작품도 아닌 <소현성록>에 관음대사가 등장하고 불교 옹호론이 전개되는 데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소현성록>에서 불교 관련 장면들을 추출하여 그것이 어

9) 대하소설 전반의 유교이념 지향에 대해서는 임치균,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 양상과 의미」(『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p.135-158)를, <소현성록>의 유교적 특성에 대해서는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를 참고할 것.

10) “양부인이 문득 상에서 내려 사례 왈 진토지인이 일찍 관음대사의 회통하심을 모르니 길이 황폐합니다. 여승이 태부인의 알아봄을 보고 일진청풍이 일어나며 몸을 감추고 일봉 서를 내리치니”(〈소현성록〉, 12권 76-77면. 현대어표기-필자, 이하 같음).

11)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3, p.153.

12) 서인석은 이 장면이 유불 대립을 남녀 대립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조선중기 소설사의 변모와 유교사상」, 『민족문화논총』 4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pp. 80~81).

13) 대하소설에서 가문의식과 같은 유교적 특성이 강조되기 이전의 초기 연구자들에게서는 불교 관련 지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병옥은, <청백운>이 유불선 삼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상당히 공정하고도 냉정한 입장에서 종교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낯은 불교관에서 진전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이상택 성현경 공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p.210) 김진세는 <완월회맹연>이 불교를 이단 괴도라 하여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조후기 대하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국고전문화학회 편,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p.127).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에서 성숙갈등의 시공을 추출해 넘으로써 세계관과 존재론적 함의를 구명하였다(『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3).

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작가가 불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추정이 가능할 터인데, 장면 삽입의 배경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아울러 탐색해 보기로 한다.

작품 인용은 이화여대 소장 <소현성록>(15권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2. 불교 관련 장면의 특성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불교 관련 내용으로 지목할 수 있는 장면들을 뽑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1】 유산하던 소경이 절에 들르자 주지의 상좌를 괴롭히던 지네 정령(요괴)은 소경을 피해 달아나고, 소경은 요괴의 소굴인 버드나무에 벼락이 치도록 하여 요괴를 없앤다.(4권 47~51면)

【장면2】 소경의 맏아들 소운경과 정혼한 위소저는 계모의 흉계를 피하려 자운산으로 피신하고 선학동 도관에 머무른다. 이웃한 운수동에는 절이 있는데, 두 곳 모두 속세의 기운이 없으며, 기특하고 득도한 자가 많다.(5권 22~24면)

【장면3】 유산하던 소운성은 절을 침노한 다섯 요괴를 처치하여 중들의 기림을 받고, 조부 소광이 남긴 글을 얻는다. 또 무뢰배를 만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절에 가던 길이었음을 알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구해 준다.(9권 15~22면)

【장면4】 운수동 여승이 찾아와 운명의 처 이씨가 요절할 상이라고 하므로, 양부인이 절에 공양하기로 한다.(10권 78~83면)

【장면5】 소경과 소운성이 여승의 집안 출입을 문제 삼자 양부인은 불사가 패도이지만 비방 받을 까닭이 없다고 하고, 소경은 수륙사를 그만둘 것을 청한다. 양부인은 아들의 뜻에 따르지만, 여승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 손자며느리 이씨를 남편 운명과 별거하게 한다.(10권 84~90면)

【장면6】 소운성이 여승을 들인 일로 하인들을 벌하려 하자 양부인이 불도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소경은 조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어머니를 설득하며, 아들 운성을 변호한다.(10권 94~101면)

【장면7】 아들과 유람하던 소경은 소운성이 절에 불을 지르려 하자 양부인의 생각을 이유로 아들을 만류한다. 요괴를 건드려 낭패를 경험한 아들들은 다시 절에 난입하여 노승에게 행패를 부리는데, 소경이 나타나 아들들을 데리고 간다.(12권 62~71면)

【장면8】 운수동 여승이 와서 천상계에서의 인연을 말하고, 이씨가 관음대사의 제자였음을 말하니, 양부인은 여승이 관음대사임을 알아보고, 여승은 사라진다.(12권 71~77면)

이상 여덟 개의 장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불교관이 다른 등장 인물이 대립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절에서 요괴 퇴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 불교관의 대립

【장면1~8】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양부인, 소경, 소운성은 불교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한다.¹⁴⁾ 【장면5~7】에는 그러한 견해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세 사람은 작품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서술자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을까?

먼저, 소운성의 경우를 보자. 그는 불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며 거칠게 응대한다. 부처에게 절하라는 노승의 요구를 받고서는 “서역 요괴로운 패도지술의 신령”(9-20)에게 절할 수 없다고 대꾸하고, 화가 나 있는 할머니 양부인에게는 “요승이 가내에 출입하면 이는 집을 망할 징조”(10-100)라고 고집하는 등 상대방이 누구이건 소운성은 의사 표현을 꺼리지 않는다. 여자가 절에 다니는 일은 “행실이 비천”(9-22)한 탓이라 여길 정도로 혐의를 지니 행동신령과 격하다. 【장면7】을 보면, 소운성은 부형들과 산행을 하다가 절

14) 【장면2】에서 위소저는 길을 잘못 들어 도관에 머물게 된다. 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며 불교 관련 장면이라 하기 어려우나 도관과 사찰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목록에 포함시켰다.

을 보자 무단히 불을 지르려고 서둔다.(12-62) 절 근처에서 요괴의 공격을 받은 후에는 그것이 절 닻이라며 형제들이 공모하여 “절 중들을 깨치며 불을 지르”(12-68)고 이를 만류하는 승려들에게는 “서역 무지한 오랑캐 귀신이 어찌 향화를 도적하고 요괴를 이웃”(12-69)하느냐며 첩편을 휘둘러 불상을 부수고 노승에게는 화살을 쏘아댄다.

주인공 소경의 입장도 적불론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아들 소운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승상(소경)과 상서(소운성)가 불도를 용납하지 않아 탑전에 진주하고 모든 중을 성내에 방자히 다니지 못하게 하고 불도 숭상하는 사대부를 논박하며 조정에 계직하여 부처 공양을 엄금하니 제생이 또한 불도 훼방함이 극하고 운성의 의논됨이 수화에 달려들지라¹⁵⁾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들 부자는 승려들이 도성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조정에 건의하고, 사대부 가운데 불교에 가까운 이들을 비판하며, 공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배불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불교를 폄하하는 언행을 일삼는 소운성과 달리 소경은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 [장면5]에서 수록재를 지내려는 양부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지할 것을 청한다.

“불도란 것이 부모를 버리고 인륜을 폐하며 신체발부를 상하게 하여 산중에 깊이 든 요물이라. 요괴로운 것이 이르러 드디어 절곡하고 모여 서기와 사리 되어 죽은 후 불에 살라 문득 공양하고 부처라 하여 신령으로 일컬으나 요괴롭고 무상하여 폐륜지인이라. 하물며 중국 귀신도 아니고 서역 오랑캐 신령이라. 어찌 차마 추존함이 있으리까? 자고로 당적 부혁이 요승을 제어하고 사리를 깨며 성인이 패도라 하시니 이 어찌 옳은 일이 아니리오!”¹⁶⁾

15) <소현성록> 10권 84면. 일부 표현은 26권본을 참조하여 수정함. 이하 같음.

16) <소현성록> 10권 86~87면.

소경은 불교가 부모를 버리고 머리를 깎으며 사리를 공양하고 중국이 아닌 서역에서 유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숭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척불을 실천한 부혁(傅奕)의 행동이나 불교를 꽤도로 규정한 성인의 판단은 소경의 입장에서 본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이때 도교의 도사 부혁의 행동을¹⁷⁾ 모범적 사례로 제시한 것은 유교 이념의 고수보다 불교 폄하가 우선이라는 그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¹⁸⁾

그러나, 손자 운성 때문에 화가 난 양부인이 척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소경은 집안에서 불교를 멀리 해야 하는 좀더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어찌 정중에 가 의논을 과도히 하여 사람의 괴이히 여김을 받으리잇고. 저 적의 공신 조원우가 추종을 데리고 친히 절에 가 등명진향하고 그 처자가 다 가서 뵈더라 하니 대신의 규중 응도가 한심하고 대신의 체면이 손상함을 통해 하여 탑진 진주하고 논핵한 후는 인하여 배척함이 중하더니 본부에서 수륙하면 해아를 허한 후에 기룡을 취할지라 당초 간함이요 운성의 방자함은 전혀 모르니이다. 이 또한 아이 불초함으로소이다.¹⁹⁾

소경은, 조정에 나아가 적극적인 배불정책을 추진했는데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 불사가 이루어지면 체면이 손상되고 놀림감이 될 것이기에 불교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사유를 내놓는다. 양부인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자 불교 자체를 공격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타협을 시도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종교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 현실적 여건을 내세우는 소경의 이러한 태도는 [장면6]에서 아들 운성의 불교 폄하를 성격 탓으로 축소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또, 절을 불태우려는 소운성에게 “모친이 일찍 불법 배척함을 과도하다 하시니 그 명을 역하여 불 지름이 인자의 도리 아니”(12-62)라며

17) 당나라 초기 불교 배척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수당가화(隋唐嘉話)》에 나오는 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과 관련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강문호, 「傅奕의 排佛論과 唐初의 불교정책」, 『신라문화』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7을 참조.

18) 유자로서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교 상상이나 방편들이 도움이 되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탐닉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전진아, 청백운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p.126 참조)

19) <소현성록> 10권 98면.

만류하는 [장면8]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척불이라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같은 입장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온건한 배불론자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부인의 입장은 [장면4,5,6,8]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녀는 수륙재를 지내지 말라는 아들에게 “불도가 비록 패도이나 어찌 부인 여자의 공양함이 비방 받을 연고 있으리오”(10-86)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서도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아들을 호뭇하게 여기고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식의 벼슬살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니 용납하는 것과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²⁰⁾ 여전히 “여승의 말을 유리(有理)하게 여겼는 고로”(10-89) 양부인은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그럼에도 손자 소운성이 집안에 불교의 자취가 있음을 못마땅해 하면서 하인들에게 벌을 내리자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무릇 정사를 관대명정하기를 주하고 작은 절목을 거리끼지 마는 것이 대장부의 기상에 가할지라. 불도가 비록 패도이나 또한 한적부터 삼대를 내려오니 전고의 명공정인이 많으되 없애지 못하였으니 네 이제 밝은 정사를 사군보국함이 옳고 무릇 일을 새 법제를 내지 말며 불도를 버려두어 제 소임을 평안히 하고 네 심히 싫을진대 친압하여 숭상을 앓을 따름이라. 어찌 숭상하는 남조차 논박하며 의논을 과도히 하리오. 내 상시 기꺼워하지 아니하되 또한 네 정도를 잡는 명교를 지키는 바라 하여 구태여 말리지 않되 내 취하지 않더니 신승이 이르러 상 봄이 영험하니 성인도 재약은 피하여 면하라 하였으니 섭세 처신에 경권을 가지런히 하여도 해롭지 않은 고로 수륙 일사를 이루려 하더니 이 때 너의 간함을 유리하다 그치고...”²¹⁾

20) 불교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양부인과 소경 모자는 특별한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반면 소경과 소운성 부자는 여러 사안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다가 소운성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대립은 줄어들는다. 이와 관련해 모자 사이의 의견 대립이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늘어나고 부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줄어든다는 점, 모자가 이념을 두고 대립하는 반면 부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두고 대립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21) <소현성록> 10권 97면.

척불론을 향한 양부인의 비판은 그 대강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장부가 작은 절목을 꺼리지 말라.
- ② 불교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없애지 못하였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고 불교를 버려 두라.
- ③ 자신이 싫어한다고 남조차 논박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 ④ 정도를 지키는 일이라 말리지는 않았지만 따르긴 어렵다.

이러한 양부인의 주장은 결국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소하게 불교를 문제 삼지 말라. 둘째, 불교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양부인은 아들의 대응 방식에 이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이 불변하리라는 강경한 속내를 표현한다. 그리고 소운성의 행패에 대해서 끝내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양부인으로 하여금 친불교적인 입장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강변하도록 하였을까? 양부인은 작품에서 시종일관 이상적인 여성의 덕을 갖춘 인물로 소개되고 소씨 가문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²²⁾ 따라서, 불교와 관련한 그녀의 언행은 비록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미미하지만 가벼운 삽화로만 보아 넘기기 어렵다. 더구나 아들과의 견해 차이는 서로가 예봉을 피한 탓에 점점이 찾아지지도 않았다.

양부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종교를 둘러싼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직접 불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불교 관련 내용은 위에 정리한 목록과 비중이 크지 않은 인물 윤씨와 한상궁의 발언이 거의 전부이다. 윤씨는 “단발 위니하여 사문에 사는 것이 묘하다”(4-29)는 의견을, 한상궁은 “궁을 하직함 으로부터 삭발위니하고 니고의 무리 되고자 하나 신체발부를 상하게 하여 성인의 교훈을 저버림이 가치 았”(8-76)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들 역시 심

22) 양부인의 여가장 역할에 대해서는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참조.

정적으로 불교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는 어쩌면 양부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편에 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요괴 퇴치

불교 관련 장면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절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유사성이다. [장면1,3,7]에서 소경과 소운성은 그들이 들르는 절 혹은 그 부근에서 요괴를 만난다. [장면1]에서는 젊은 중이 지네 정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장면3]에서는 요괴들이 절의 객당을 차지하고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 [장면7]에서는 절 근처에서 소운성의 형제들이 요괴의 기운을 감지하고 이를 없애려 하다가 요괴에게 봉변을 당하고 절을 찾아가 분풀이를 한다.²³⁾

이처럼 세 장면은 [영웅적 인물](소경, 소운성)-[절]-[요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경과 소운성의 성격을 종합적이며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²⁴⁾ 신이한 출생담이 전체 서사를 통어한다는 관점에서 유교 이념을 수호하고 구현하는 인물들의 권능과 비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²⁵⁾

그런데, 반복되는 세 장면 사이에 차별성은 없는가? 척볼론자인 소경과 소운성이 [장면1]과 [장면3]에서 왜 절에 들르며 승려들을 도와주는가? [장면7]에서 소운성은 왜 요괴보다 약하고 노승보다 약한 존재가 되는가? 이런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공통된 배경이 불교적 공간임에 주목하여 요괴퇴치담을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세 장면의 특징을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박영희는 “절에서 악귀를 쫓는 모험담”이 불교의 허탄함과 사악함을 강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앞의 논문, p.152). 그러나 이들 요괴의 행동 모두를 ‘악’이라 규정하기 어려우며 寺中이 요괴 출몰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불교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반영된 이야기라 볼 수 없다.

24) 박대복 강우규,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p.361.

25) 김용기, 「출생담을 통해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발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333.

장면	요괴의 정체	요괴의 악행	징치자	징치 수단
[장면1]	지네	상좌 괴롭힘	소경	벼락
[장면3]	산계, 여우, 뱀, 거북, 석사자	절 객실 차지	소운성	칠성검
[장면7]	표범(20000년) 곰(15000년) 이리(8060년)	×	소경, 소운성	제요가 (除妖歌), 통소 곡조

<표 1> 요괴 퇴치담의 특성

<표1>를 보면, 장면을 거듭할수록 요괴의 세력은 크고, 인간 세상에 대한 관여는 줄어든다는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장면1]에서 지네 정령은 젊은 중에게 빙의하여 그를 괴롭힌다. 반면, [장면7]에서 요괴들은 “하나는 이만 년 묵은 표범의 정령이요 하나는 일만오천 년 묵은 곰의 정령이요 하나는 팔천육십 묵은 이리의 정령”이지만 “이미 구멍을 지키어 도를 닦고 산신을 제어하여 수하를 삼았으되 민간에 작폐한 일이 없고”(12-64) 조용히 지내는 터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소운성의 행동에 화가 나 형제들을 공격한다. 결국 소경의 힘에 눌리기는 하지만 이들 요괴들은 “도군(=소경)께 굴슬(屈膝)하나 그대(=소운성)의 여러 형제 사생은 아들의 낭중의 것 처치함 같으리라”(12-66~67)하면서 소운성을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징치자에 주목해 보면, 요괴의 힘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징치자의 힘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장면1]에서 젊은 소경은 글을 써 붙여 벼락의 도움으로 지네 한 마리를 처치할 뿐이지만 [장면3]에서 소운성은 칠성검을 휘두르며 요괴 다섯을 제압한다. [장면7]은 이들이 함께 요괴를 협공하므로 가장 위력적이다. 그런데, 응징의 방식은 [장면1]에서 쓰인 벼락이 가장 강력하다. [장면3]은 칠성검을 사용하여 요괴의 본색을 드러내는 정도이고, [장면7]에서는 ‘제요가(除妖歌)’와 통소소리를 활용하여 요괴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응징이라기보다 감화에 가까운 방식이 쓰였다.

결국 세 편의 이야기는 단순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요괴의 힘이 클수록 인간세상에서의 작폐는 줄어들며, 정치자의 힘이 클수록 그 응징의 방식은 부드러워진다는 점을 은연중 전하고 있다. 이때 절은 인간과 요괴의 만남을 매개하는 공간이다. 자연스레 바람직한 공존 방식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는데 정체 모를 노승의 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불로 추앙 받는 ‘노승’은 화살을 맞고서도 소운성에게 저항하는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소경이 등장하여 소운성의 행동을 만류하는데, 이 역시 공존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사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승이 출현한다는 것은 작품에 중대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²⁶⁾ 이 장면에서 요괴에게 패퇴당하고 아버지의 제지를 받은 소운성은 공존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결여되어 무용담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으로 그려진다.

절에서의 소동이 노승과 소경의 연이은 출현으로 마무리되는 내용 바로 다음에는 양부인 앞에 관음대사가 출현하여 천상계의 설화를 전함으로써 불교를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연관지어 <소현성록>에서 이들 불교적 요소가 도입된 배경과 그 의미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3. 불교 화소 도입의 배경과 의미

<소현성록>에 출현하는 관음대사는 같은 시기 창작된 <사씨남정기>에서도 목격된다. 이 작품에서는 관음보살이 전반적인 서사 전개에서 큰 비

26) 양부인의 수양녀 윤씨의 자녀들이 윤씨와는 달리 소씨 가문에 특별한 호의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하여 소씨 집안 사람들이 섭섭하게 여기는 모습, 부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화씨의 아들 소운명에게 체면을 생각해서 고종 사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석씨가 조언하는 모습, 그리고 두 부인을 둔 소경이 성격이 다른 네 사람의 장인 장모에게 각각 어떻게 달리 응대하는지 서술한 내용 등을 보면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시간에 따른 인물 성격의 변화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소현성록>은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소현성록>의 최대 강점이며 대하소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 허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심증팔구 작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대목일 가능성이 높다.

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작품이 표면상 유교적 부덕을 중심으로 하지만 내면에는 관음사상의 핵심인 자비와 구제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²⁷⁾ 작품에서 관음사상이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만중이 ‘관음신앙’에 대해 유념하고 있었음은 『서포만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저 불법이 한나라 때부터 전해져 당송을 거쳐 그 거친 것은 도가가 되고 정수는 유가가 되어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찍이 불경을 보니 “관음 대사가 32 응신으로 화하여 말속(末俗)을 교화한다” 하였으니 만약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 큰보살이 도사와 유자의 몸으로 현신하여 중토(中土)를 제도한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²⁸⁾

<창선감의록>에서도 남채봉이 관음화상을 그린 것이 인연이 되어 관음의 보살품을 받는다. <여와전>에서는 ‘관음’이 문창과 설전을 벌이는 것이 작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²⁹⁾ <옥루몽>에도 관음보살은 등장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소설 속 출현이 이처럼 잦은 것은 단순히 허구적 창안의 편의성 때문이라기보다 불교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산출되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불교는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후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정부의 묵시적인 지원 아래 17세기 이후 불교는 더욱 성행할 수 있었다³⁰⁾ 소설 작품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이때는 가문의식이 팽배해 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불교에 호의를 지닌 경우에도 여전히 ‘벽이단(關異端)’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이 다수였으며, 이들은 불법을 ‘허환공적(虛幻空寂)’으로 규정해 버리거나 ‘심은 알지만 성을 알지 못하는(知心而

27) 설성경,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 장경각, 1999, p.217.

28) 『서포집 서포만필』, 통문관, 1971, p.514.

29) “<여와전>에서의 관음과 문창의 대결은 관음에 대해 타격을 주기 위하여 작자가 설정한 것이다”(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p.135).

30)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한국사상사학회, 1999, p.307.

不知性’ 또는 ‘용은 알지만 체를 알지 못하는(知用而不知體)’ 이론으로 폄하하였다.³¹⁾ 그러나, 17세기 후반 서울 경기 지역 서인 계열 가운데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갖는 자들이 적지 않았으며³²⁾ 불교가 억압받는 상황에서 박세당처럼 유불회통적 사유를 보여준 이도 있었다.³³⁾

불교에 대한 이같은 우호적 사회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소설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품 속에 불교적 요소가 들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이념의 수준에서 수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³⁴⁾ 다만, 지식인 사회의 친불교적 성향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억불정책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임을 유념한다면 소설 속 불교적 요소의 삽입도 단순한 수단적 의미만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관음보살의 여성적 형상이 점차 강화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지적을³⁵⁾ 참조하면 <소현성록>에서 관음대사의 출현이 계기가 되어 집안의 남녀가 대립하는 상황은 좀더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하소설의 주요 독자층을 고려할 때 더욱 요구되는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불교를 두고 모자가 대립하는 장면은 단순한 대결 구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유교와 불교의 대립에 각각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중첩시켜 비등한 여건을 조성하긴 했지만, 유불이 맞수로서 싸울 수 있는 공정한 상태를 작품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결이 제약을 받듯이 유교와 불교의 대립 또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불교관이 대립하는 장면이 갖는 역할은 다음 둘 중 하나이다. 유교적 입장에서 잘못된 행태를 질타하고 불교를 멀리하여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자고 선언하는 것이거나 불교적 입장에서 유교의 대응 방식을 문제삼고 항변하는 것이다. 유교 이념의 교조적 성향이 강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에

31) 이승수, 「18세기 전반 사대부의 불교 이해-서당 이덕수의 경우」,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2, p.240.

32)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 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 현실』 51, 한국 역사연구회, 2004, pp.188~9.

33) 이희재, 앞의 논문, pp.5~27 참조.

34) 서인석, 앞의 논문, p.81.

35) 조현설 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p.151.

무계를 두면 첫 번째 의미 부여가 타당하겠고, 새로운 사상의 동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확산되어 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³⁶⁾ 두 번째 의미 부여가 타당할 것이다.

17세기말의 조선 사회가 유교가 굳건해지는 길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불교를 옹호하는 세력이 점증하는 길 위에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적어도 <소현성록> 안에서는 이들 두 가지 길이 교차하지만 불교관의 대립은 후자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⁷⁾ 작품 속 다른 장면과 연관지어 볼 때 그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소경의 첫째 부인 화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현실에서 ‘작은 절목’으로 언급되듯이 화씨의 존재는 집안의 작은 걸림돌이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충돌한다. 남편의 재취 여부와 며느리 문제 등을 두고 시어머니 양부인과 대립하고, 자녀의 교육방법이나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 문제로 남편과 대립한다. 사건은 언제나 화씨의 뉘우침과 사과로 끝을 맺지만 집안에서의 그녀의 지위는 내내 변함이 없다. 악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상적인 여인상도 아닌, 비슷한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녀의 작품 속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화씨의 실수에 대해 소경은 반복해서 선언적인 교화를 시도한다. 이는 소경이 양부인 앞에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하지만 간혹 화씨가 분란의 모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밝혀지기도 한다. 그래서 화씨의 예상치 않은 돌발행동들은 교화를 시도하기 위한 사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색채가 짙은 억압적 분위기에 대한 항변으로 읽힌다.³⁸⁾ 비슷한 맥락에서 불교관의

36) “숙종 대 이후 북벌의지가 약화되면서 중화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고 또 당쟁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으로 기존의 주자주의적 학문풍토에 회의를 느끼게 된 사회 분위기가, 사대부들이 다양한 사상의 통로를 모색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유호선, 서당 이덕수의 불교관과 시문학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18, 2002, p.256.

37) 서인석은 <사씨남정기>에서의 가정의 일시적 붕괴가 중세사회 해체기의 가정을 보여준다는 시각에 대해 “성리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집안이 유교적 가정으로 변모하면서 세삼 문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서인석, 앞의 논문, p.75)고 지적하였다. 불교관의 대립 장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그같은 지적에 착안하였음을 밝힌다.

38) 소경의 두 부인 가운데 이상적인 여성상을 갖춘 것으로 소개된 석씨와 달리 화씨는 계속해서 가문 구성원들과 충돌한다. 대립적 자질이 뚜렷한 두 여성만을 두고 보면 화씨는 석씨를 부각하는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씨의 충돌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남편은 물

대립도 특정 이념의 강요에 대한 항변으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불교관을 둘러싼 대립 장면에서 특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요괴를 징치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 절이 설정된 것 역시 그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부인, 노승, 여승은 각자의 세계에서 지위가 높은 이들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양부인은 집안의 최고 어른이며, 노승은 승려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고 여승은 관음대사 즉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양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아들 소경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노승은 신비한 법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운성이 쓰는 화살을 맞고만 있을 뿐이다. 관음대사 역시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승이 다시 이르되

“형부인이 일 년을 공방을 겪으실 운수가 있으니 이는 천도의 덧덧이 면치 못할 조각이니 운액의 불리함이 석부인 형부인이 같으시고 화부인은 육년 공방을 겪으시어 단장곡이 일어날 상이나 필경은 또한 무사하리이다.”

화석 양부인이 크게 경혹하나 석씨는 본디 단중한 고로 경동치 아니하되 화시 장차 착급하여 이르되

“사부의 말로써 보건대 가히 신명께 빌어 면할 일이 있으랴?”

“이는 천수이니 어찌 공양함으로 가리오.”³⁹⁾

인용문에서 보듯이, 화씨가 6년 공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언에 다급해 하며 면할 방도를 묻자 관음대사는 천수는 막을 수 없으니 공양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만 소운명의 처 이씨가 요절할 관상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액운이 소삭하고 수가 삼십 세를”(10-83) 넘길 것이라고 조언한다.

훗날 집을 다시 찾은 관음대사에게 소월영은 아우 소경의 반대로 수록제

론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의 역할에 대한 물음도 동시에 제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9) <소현성록> 10권 81면.

를 지내지 못했는데 이씨의 수명이 늘어난 사실을 궁금해 하며 이전 발언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 그러자 관음대사는 소경이 며느리 이씨를 위해 북두성에 삼일 기도를 올렸음을 언급하면서(12-72) 불가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상의 불사 나무라심도 그르지 아니”(12-72)하다고 말한다. 이는 관음대사 스스로 불교적 가치의 한계를 자인하는 대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녀가 당초에 강조했던 것이 불교 의식을 통한 운명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후가 모순되지 않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세 등장인물은 각각 서로 다른 이념에 기반한 공간에 소속되어 있다. 양부인은 유교적 사고가 지배하는 가문의 정점에 있으며, 노승은 절에 거처하고 있다. 관음대사는 불교적 성향을 보이지만 그가 속한 세계는 동방선, 용녀, 규목랑, 월하노인 등 도교의 많은 신들이 왕래하는 공간이다. 그들 가운데 관음대사는 현실을 넘나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점에 놓을 수 있다. 유가의 양부인과 도가의 관음대사는 불교를 매개로 접촉하며, 절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유교적 성향의 소경, 소운성과 도교적 존재인 요괴들에게 접촉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사상 기반	세계 속성	정점	인물들
유가	현실계	양부인	소경, 소운성
불가	중간계	노승	승려
도가	환상계	관음대사	요괴

<표2> 공간적 배경의 특성

흥미로운 사실은 악인으로 규정되는 인물들이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사에 관여하려는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천수’란 관음대사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인물들은 용납되지 않으며 징치의 대상이 된다.

소씨 가문에서 축출되는 여성들이 악인으로 규정되는 이유도 역시 세계

의 경계를 넘은 힘을 빌려 변화를 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씨, 명현공주, 정강선이 그들이다. 특히 정강선의 경우 전생 신분이 잉어의 정령인 설낭이어서 본질적으로 요괴와 다르지 않다. 인간사에 관련한 요괴들이 응징을 받듯이 이씨를 없애려던 정강선 역시 천수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다스림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녀의 처지는 여씨나 명현공주보다 더욱 비참하게 소개된다. 이는 정강선과 이씨의 관계가 전생에서 빚어진 문제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소개되지만⁴⁰⁾ 그녀가 천수를 직접 바꾸려고 했기에 1차 응징 이후에 후일담 형식의 응징을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씨 행위의 비밀을 제공한 도화진인이나 요괴들에 대한 응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경은 도화진인에게 “네 만일 다시 그른 뜻을 먹지 말고 도학을 닦으면 삼천 년 공부가 헛되지 아니”(3-96)하리라 명하고, 위력이 막강한 요괴 또한 소경에게 “너희 등이 천운을 입사와 나이 장수하고 도를 익혔으나 감히 군자의 거처를 능범치 못하리니 일찍 돌아가지 않은즉 여등의 공부가 그런 떡이 되리라”(12-67)는 경고를 받는다. 소운성 역시 절에 난입하고 요괴들을 불태우려 시도하는 등 이계 간섭을 꾀하는데 이는 최소한 인간의 기준으로는 ‘천수’와 무관한 행동들이라는 점에서 악인들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불가에 기반을 둔 절이라는 공간을 통해 현실계와 초월계는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소통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상호간 불간섭을 원칙으로 고수하여 연결과 단절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각의 세계의 자족성은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러한 공간 구성의 방식은, 불교를 사건 해결의 요소로 적극 활용하면서도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배타시하는 작품들과 다른 부분이다. <소현성록>은 불교적 시공과 도교적 시공에 대해 최소한의 분량을 할애하는 데 그친다. 그러면서 작품의 중심에 유교적 공간인 가문이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그곳에서 빚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치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적 시공은 그 역할이 미미하다.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불교적 시공의 축소판이거나 주인공의 영웅성을 포장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

40) 김용기, 앞의 논문, p.242.

인다.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불교적 입장에서 의 항변을 은연 중 노출시키고 절을 특정의 공간으로 한정하며, 전체 세계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공간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시공의 조화가 달성됨으로써 가문 외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견들이 은연중 수용되고 선악 구분에 대한 명징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독자들은 그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상을 바꾸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동시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현성록>의 독자성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독자들에게 각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불교의 경우, <소현성록>은 기복 신앙으로 흐르기 쉬운 불교상을 저지하고 불교 교유의 성격을 지지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교적 시공을 적극 활용하는 작품보다 서술 분량은 적지만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관심사로 떠오른 유불 회통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즉, <남염부주지> 등에서 보이는 불교의 규정 방식, 불교를 사도로 규정하면서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불교 수용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결론

보는 이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소현성록>은 허점이 많은 소설이다. 딸에게 죽음을 강요했던 어머니가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아내의 허물을 꾸짖던 이상적인 남편은 자신의 허물이 지목되었을 때는 머뭇거리다. 출가한 딸이 친정에서 지내는 모습은 자세하게 기술하면서도 정작 시집에서 겪은 일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는 딸은 황비로 궁중에 들여 보낸다. 그리고 열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 소운성과 소운명 둘만 천상계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런 허점들을 한계로 보아 작품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말해야 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부러 말한 그런 상황에서 청자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상상력이 <소현성록>이 독자들을 유인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품에서 충분히 서술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부분 가운데 관음 대사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불필요해 보이는 요괴퇴치, 노승의 출현 등이 불교적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장면의 특성과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 관련 기록은 제반 정황을 고려해야 하며 작품에서 그것이 다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소현성록>의 불교 관련 장면에서는 불교관이 다른 인물들의 대립과 절에서의 요괴 퇴치라는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3. <소현성록>은 불교에 대한 가문 구성원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면서 유불 대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요괴퇴치가 이루어지는 절은 악의 소굴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보다 공존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 17세기 후반의 불교 관련 동향을 감안할 때 불교관의 대립은 특정 이념에 대한 불교의 항변으로 읽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불교 이념의 전면적 수용과는 다르다.
6. 도가 불가 유가에 바탕을 둔 공간들은 각각의 세계가 갖는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세계의 조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응징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설정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소현성록>에 한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화소들이 다른 대하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교적 화소의 출현은 대하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군담소설, 판소리계소설, 전기소설 등에서 그것이 활용되는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담당층의 동향과 연관지어 볼 때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소현성록>(이대본) 15권

<서포집 서포만필>, 통문관, 1971.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4, 정형지의 5인(공역), 보고사, 2006.

설성경,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 장경각, 1999.

송성욱, 『조선시대 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 의식』, 태학사, 2003.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3.

조현설 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김용기, 「출생담을 통해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발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김진세, 「이조후기 대하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국고전학회 편, 『한국 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박대복 강우규,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3.

서인석, 「조선중기 소설사의 변모와 유교사상」, 『민족문화논총』 4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유호선, 「서당 이덕수의 불교관과 시문학연구」, 『한문교육연구』 1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이승수, 「18세기 전반 사대부의 불교 이해-서당 이덕수의 경우」,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2.

이희재, 「17세기 박세당의 유불회통적 불교관」, 『유교사상연구』 25, 한국유교학회, 2006.

임치균,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양상과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0.

전진아, 「청백운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 한

국고전문학회, 1997.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 이상택 성현경 공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 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조성산,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한국사상사학회, 1999.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The Implications of Religious Conflict and Spatial Structure in <Sohyeonseongrok>

Lee, Jooyoung

<Sohyeonseongrok> is widely known as a work that configured the Confucian ideology clearly. Nevertheless, characters in the work confront with one another over the Buddhist nun's entrance to the house and whether to hold a Buddhist rite. Considering the tendencies of those involved in the confrontation, the confrontation is between men and women as well as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The question is in that the confrontation is not end up with the victory of either side. In the work, moreover, a temple is sometimes set as the spatial background. Male characters encounter evil spirits at the temple and defeat the spirits by exhibiting their power. In this sense, a Buddhism temple is designated as a space where evil spirits reside.

What is the reason for adding such Buddhism related contents to <Sohyeonseongrok>? The explanation popping into our mind first is that they are to depreciate Buddhism. However, Lady Yang, the eldest in the house, stands by Buddhism in the Confucianism Buddhism confrontation among the family members. Those who suffer direct damages from the evil spirits are also people who stay in the temple. Thus, it is not easy to conclude that such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work in order to attack Buddhism.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Taoist and Buddhist elements are utilized as a means to construct a transcendental world. This may not be an adequate explanation either because contents related to Buddhism occupy only a small part of the novel.

The late 17th century when the work was written was when the Confucian ideology was strongly dogmatic. Furthermore, people's interest in Buddhism grew high in those days. This work is not irrelevant to such historical situations. Thus, Buddhism related contents in this work are believed to show some ways of

response to excessive criticism against Buddhism. Particularly in the setting of a Buddhist space as an intermediate world between the real space of Confucianism and the surreal space of Taoism, this intention seems to be reflected clearly. These results of our discussion may be meaningful in that they give the understanding of the novel readers' religious tendencies and lead us to review the meanings of Buddhist related contents in other works.

Key words: anti-budhist views, goblin, Avalokitesvara, fantasy, taoism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
